

보도시점 (지 면) 10. 7.(월) 조간
(온라인) 10. 6.(일) 12:00

인구감소지역 중소·벤처기업 투자 위해 200억원 규모 '인구활력펀드' 조성

- 중기부·행안부, 모태펀드 95억원, 지방소멸대응기금 45억원 공동출자해 총 200억 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
-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중소·벤처기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로 운용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오영주)와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'인구활력펀드(이하 활력펀드)'를 조성한다고 10월 7일(월) 밝혔다.

활력펀드는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95억 원,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45억 원을 각각 출자하며, 민간투자를 추가로 유치해 연내 총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.

이번에 조성되는 활력펀드는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경제적 활력이 저하된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돕고,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구체적으로 펀드 금액의 60% 이상*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소재한 중소·벤처기업 등과 투자 후 2년 이내 본점을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, 연구소,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.

* 정책펀드가 특정 목적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금액, 벤처펀드는 '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' 소재 중소·벤처기업에 60% 이상 투자 필요

사업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월 7일(월)부터 한국벤처투자 누리집(<https://www.kvic.or.kr>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인구활력펀드에 참여하는 민간

투자자들을 위한 출자 제안서는 10월 21일(월) 10시부터 10월 28일(월) 14시까지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(<https://install.kvic.or.kr>)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.

한편, 중기부와 행안부는 민간 투자자와 긴밀하게 협력해 펀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, 내년부터는 지역별 투자 현황과 수요를 분석해 펀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
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"부처 간 협업으로 출범한 이번 펀드를 통해 혁신적인 중소·벤처기업이 인구감소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"고, 밝혔다.

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"인구활력펀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중소·벤처기업을 지원하게 될 것"이라며, "지역 기업에 대한 두텁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,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.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	책임자	과 장	허남석 (044-205-3501)
		담당자	사무관	김형균 (044-205-3412)
담당 부서	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	책임자	과 장	이권재 (044-204-7710)
		담당자	사무관	박병민 (044-204-7713)

